

사진부 칼럼



초록불이니 원하는 대로 마음껏 걷기

정해진 길이 있다고 믿었다. 사회에서 안내하는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특정 시기가 되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 분명하게 보였던 길은 열어지고 다른 방향의 길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책 『트라이앵글의 시대』에서는 말한다. “요즘처럼 모두가 비슷비슷한 교육을 받고 고만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때일수록 더욱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남이 아닌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마음껏 걷기. 설령 그 걸음에 동행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용기내기. 갈림길 앞,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화인을 응원하며.

김서영 사진부 수습기자

여론광장

빈둥대는 베짚이의 변론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싶다. 많은 것에는 무용한 것들이 포함된다. 어딘가 ‘쓸데없는’ 것들. 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서에 적어 내려갈 수 없는 것들 말이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00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곤 적을 수 있어도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즐겨보는 ASMR 영상에는 비누 쥐는 영상이 있습니다라고 적을 수 없는 것들. 생산적이지 못한 것들.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ASMR 영상 보기(하루에 한 번은 꼭 찾아본다), 그림 따라 그리기(최근 거금을 들여 아이패드 프로3를 샀다), 코인노래방 가기(살아오며 가장 오래 지속해온 여가 행위다. 학교 앞의 코인노래방은 모두 섭렵했다), 웹툰 보기(유료 결제를 위해 쿠키를 자주 굽는다), 좋아하는 가수가 정점을 찍었던 하루의 라이브 동영상 보고 또 보기 등등. 안타깝게도 난 이런 것들을 하며 죄책

감을 느낀다. 많이 느낀다.

하지만 나는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서 훌륭한 것들 역시 마구마구 하고 싶다. 더 솔직히 말해선 하고 있다고 소개해야 안심이 된다. 회사에서 경험 쌓기 대회 나가기, 나가서 발표하기, 장학금 받기, 논문 읽기, 논문 쓰기, 해외 동향 뉴스 읽기, 공부하기, 지원서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스테디타기, 이력서 정리하기 등등.

왜 무용한 것들을 소비하며 죄책감을 느낄까. 근원을 타고 거슬러 생각해보자면 중심에는 시간이 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노동이 자본인 사회다. 그 때문에 같은 시간을 주었을 때 도달해내는 성과 즉 나의 노동력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쓸모 있는 것을 했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똑같이 애정하고 똑

같이 떼땀이 하며 살아가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변명해도 노동이 자본인 사회에서 나의 무용한 행위는 내 사생활의 범주일 뿐 사회적으로 합의된 자원으로 인정받을 순 없다. 내가 애정하는 무용한 것들은 재화로서의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슬프다. 쓸모 있지 못한 것들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고 떼땀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무용한 것들을 하기 위한 시간을 위해 덜 사랑하는 나머지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쓸데 있는 것들을 좀 더 할수록 쓸데없는 것들을 할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책감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니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정도로 타협을 보고자 한다.

전재영(웅콘·16)

Z의 시선

지(之)의 행복

Z세대 이전의 세대에게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쪽 뻗은 도로가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앞 다투어 행복이 보장된 하나의 길을 달리는 것에 집중했다. 탄탄대로의 이정표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개 지점에 압축돼 나타났다. 대학, 회사, 그리고 결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좋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 변곡점들을 무사히 통과하면, 행복에 자연스레 다다르게 된다고 믿었다. 길을 달리는 집단에서 이탈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모두들 같은 행복을 추구했고 그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Z세대는 길을 걷기도 전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는 부당함을 깨닫거나, 눈앞에 막연히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나, 천편일률적 행복이 과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전 세대가 당연하게 믿었던 일(-)자 도로 끝의 행복이, 과연 Z세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

본적인 물음은 그들의 걸음을 갈지(之)자로 늦추었다. Z세대의 부모들은 휘청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걸음을 보고, 행복을 향한 의지와 끈기, 목적의식이 부족한 ‘요즘 애들’에 대해 혀를 끌끌 차고는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불러온 지각변동은 기존 세대가 뿌리를 내린 기반을 흔들고 있고, 일자 도로만을 달리던 세대가 낡은 고질적인 폐단에 더해 새롭게 출현한 문제들은 원래의 처리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이에 Z세대는 자신의 부모와 스스로의 행복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Z세대의 행복은 개인마다 다르게 생겼다. 집단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는 그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현실을 직시하려고 한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복잡하지만, 현실주의는 Z세대의 사고를 간단명료하게 만들고 직감과 기분에 집중하게 한다.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행복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려내기 쉽고, 공장 손을 뻗어 성취하기 쉬우며, 스스로에 대해 솔직해지게 만들기 쉽다. Z세대는 현재의 행복을 쥐기 위해 불편함을 참지 않는다. Z세대의 행복은 결코 약속되거나 지연되거나 거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Z세대의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행복관은 행복을 향해 달리기 위해 발을 계속해서 길에서 떼어내던 윗세대와는 달리 발을 땅에 계속해서 붙이고 있기에, 실로 지(之)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얼핏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갈지 말지 고민하는 모양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자 ‘갈 지(之)’자에 간다는 뜻뿐 아니라, 어떤 일에 영향을 끼치다, 어떤 물건을 쓰거나 사용하다, 어떤 장소나 시간에 이르다 등 다양한 뜻이 있는 것처럼, 지(之)의 행복 역시 무한한 단면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인혜(커미·16)

상록탐

모두가 달려도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김수현  
취재부장

흔히 사람들에게 한국인을 대표하는 문화를 물으면 열에 아홉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답할 거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는 빠른 배달, 빠른 인터넷 등 죄다 속도를 강조하는 문화가 많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부터 슬그머니 짐을 내려 빨리 나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한국인 아니냐’ 생각할 정도다. 그만큼 우리는 일 자체가 갖는 가치만큼 그 일을 처리하는 속도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 총량은 누구나 비슷함에도 한국에서는 인생을 어떤 속도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린 인생에 한해서는 절대적인 속도보다 남과 비교한 상대적 속도를 과도하게 신경 쓴다. 내 인생이 남들보다 빠르면 좋고, 비슷하면 괜찮으나, 남들보다 느린 것은 절대 용납지 못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인생의 대소사를 남들과 같은 때에 치르게 됐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말이 마치 모두가 정해진 때에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읽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닦쳐올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보내야 한다. 모두가 달리는 상황에서 혼자 여유 부리면 곧장 뒤쳐질 테니.

한국 사람은 여유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는 칼럼을 여러 개 읽은 적 있지만, 이런 삶이 익숙해 사실 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었다. 혁신학교 취재를 이유로 미국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찾아가기 전까진 말이다.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4년 내내 교양 수업만 들으며 졸업까지 전공 없이 고전을 200권이 넘는 대학으로, 점점 실용 학문을 중시하는 한국 대학과는 비교된다.

취재를 시작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 사람들 제대 취업은 될까?’였다. 우리는 대학 졸업 직후 취업을 목표로 1학년 때부터 대외 활동, 동아리, 심지어 복수 전공까지 계획하는데, 4년동안 고전 읽고 토론만 한다니 과연 어떤 기업에서 이들을 원할까 의문이었다.

이 의문은 취재를 준비하면서 점차 해소되는 듯 했다. 기존 언론이 발표한 세인트 존스 칼리지 기사에 따르면, 이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시켜 취업률이 높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창한 말이 기사에 줄줄 이어졌다. 기사를 찾아보며 학생들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런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직접 찾아간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언론이 말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며 70%는 자기 전공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만난 재학생들은 취업 계획을 묻는 나에게 ‘그걸 지금 생각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전공을 고민한 뒤에 슬슬 취업하면 되지 않겠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나로서는, 다른 대학 학생보다 취입이 최대 4년 늦어질 수 있는데도 이 학교를 선택한 일이 이해가 안됐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한 이유가 있냐고 묻자 모험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여기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게 즐겁고 100년 인생 중 4년 정도는 이렇게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 따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뒷통수를 맞은 듯 했다. 일 년 휴학하고 외국에 나가보겠다 말하는 동기에게 미래 생각해서 한 학기만 하라고 말했던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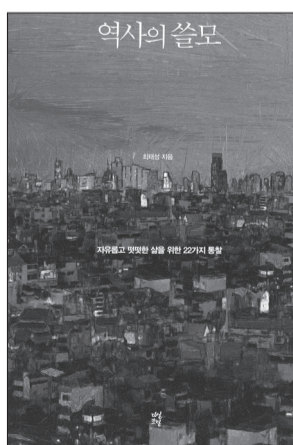
“남들 할 때 해라.” 정해진 교육과정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고등학생 때는 실감하지 못했던 말인데, 대학에 오니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많은 걸 포기해야 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대학생이 늦어지면 안된다는 조급함에 교환학생, 휴학 등 마음이 원하는 일을 포기한다.

조급한 한국 정서, 나이 많은 사람은 뽑지 않는 기업 분위기가 먼저 변해야 한다. 기성 세대는 신입 사원은 어릴수록 좋다고 말하지 말고 어리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 남들보다 느리게 살아도 비난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여유롭게 인생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다. 자기 마음 속 목소리를 따라 인생을 돌아가는 이들이 잘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본다.

금주의 책

『역사의 쓸모 : 자유롭게 떼땀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

최태성 지음, 파주 : 다산초당, 2019



이 책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것의 쓸모를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는 역사 입문서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궤적을 그려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조명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전합니다.

역사 공부를 통해 과거의 사람을 만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결국 지금의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 저자는 역사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당장의 실때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알게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 그 방향성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의 삶에서 좋은 영향과 자극을 받아 내 삶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곧 역사의 쓰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쓰여진 이 책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951 최842역]